

CBS뉴스, 이단저지 큰 성과

한국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표적 이단 집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막는 일에 CBS가 앞장서고 있다. 특히 CBS 보도는 신천지의 법인화 추진과 이미지 개선 사업을 막는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임진각 비석 철거서력

CBS는 지난 8월 11일과 12일 이단 신천지가 임진각에 '조국통일선언문'이란 비석을 세워 8·15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CBS는 또,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 하는 의미로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큰 태극기를 만든 뒤 현충원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은 이 태극기 전시를 포기하고, 반출하기로 결정했다.

신천지 봉사단체로 알려진 '만남'은 지난해 10월 임진각 무궁화동산에 '조국통일선언문'이란 비석을 세웠다. CBS가 임진각과 무궁화중앙회,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 허가도 없이 신천지 비석이 세워진 사실이 드러났다. 비석을 세운 만남측은 뒤늦게 철도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으려했지만 철도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석은 결국 철거됐다.

현충원 태극기 반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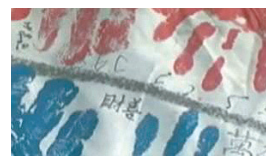
CBS TV보도부는 지난 8월 12일 현충원이 특정 교주를 신격화 하는 의미를 담은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CBS 보도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은 SCJ

임진각 '신천지' 불법비석 고발보도로 철거

신천지 '손도장 태극기' 보관 보도...현충원 반출결정

신천지 법인화 저지... '이단과의 전쟁' 선봉장



이단종교단체 '신천지'가 임진각에 불법적으로 세운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왼쪽)과 국립현충원에서 보관중이던 대형 손도장 태극기. 신천지를 나타내는 'SCJ'문구가 보인다(사진 위).



신천지를 상징하는 문구를 담은 손도장 태극기를 8월 31일까지 반출하라는 공문을 만남측에 발송했다.

신천지 법인화도 적극 저지

CBS는 이밖에도 신천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도함으로써 이단 세력의 법인 등록을 막는 데 기여했다. CBS TV보도부는 지난 3월 신천지가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도했다.

CBS 보도 이후 경기도측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공익에 해가 된다면서 신천지측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CBS는 이후 신천지측이 경상북도에 또 다시 사단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 지역 교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보도 이후 여러 교계 단체들이 신천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신천지의 법인화 등록은 무산됐다.

이단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소송

전남CBS값진 승리

전남CBS가 구원파측으로 알려진 국제청소년 연합 'IYF'와의 1년 반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2 민사부(이영동 판사 외 2명)는 지난달 7일 IYF가 전남CBS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CBS의 보도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반 고등학교가 정통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종교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이단종교행사 학생동원 말썽' 보도

법원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 결정

참석시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CBS는 지난 2009년 12월 '이단종교행사에 고 3 동원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IYF 측이 기쁜소식선교회와의 관련성을 감춘 채 공공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홍보 활동을 하는 데 대해 비판한 기사였다. 이후 IYF가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에서 펼쳐 했던 동아리 홍보 활동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CBS, 한국교회 이미지 개선 최선"

CBS 이재천 사장 인터뷰

한국교회가 위기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터넷상에서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단사이비세력은 이 틈을 타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럴 때 CBS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재천 CBS 사장은 "교회 내적으로는 갱신에 힘쓰고, 외부의 악의적인 기독교공격에 대해서는 CBS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와 신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적극 발굴, 보도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영상 중심 스마트 뉴스 제공... 교계뉴스도 문자 서비스

한국방송대상 4개 부문 작품상 수상해 높은 경쟁력 입증

CBS음악FM의 청취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음악FM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CBS음악FM(서울, 경기, 부산) 청취 점유율이 국내 라디오 매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타 방송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높은 청취율은 잡다한 멘트를 줄이고, 7080을 겨냥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제 38회 한국방송대상에서 CBS가 어린이 청소년,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지역취재보도 등 4개 분야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CBS의 높은 경쟁력을 입증해준다.

CBS의 스마트 미디어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성과는?

CBS조직에는 다른 방송사에 없는 <크로스 미디어센터>가 있다. 전사적으로 스마트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다. 현재 CBS라디오 <레인보우> <CBS TV> <CBS성경> <노컷뉴스>어플이 서비스중인데 인기를 끌고 있다. IP TV에도 진출했다. KT의 올레 TV 557번을 통해 CBS TV를 볼수 있게 됐다.

CBS뉴스도 스마트 미디어에 걸맞게 달라지고 있다는데...

<노컷V (www.nocutv.com)>라는 동영상 중심의 새로운 뉴스채널을 지난 9월1일 오픈했다. <노컷V>는 풀HD영상을 기반으로 텍스트, 영상, 오디오, 사진, 그래픽, 만화 등 가능한 미디어 수단을 통합 활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뉴스 브랜드다.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친밀한 뉴스, 올바른 뉴스, 따뜻한 뉴스, 재미있는 뉴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스마트뉴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또, 크리스천들에게 교계뉴스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BS가 시행하는 기독교 통합구매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CBS가 방송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에 착수했다. 9월에 오픈하는 온라인 쇼핑몰 '홈켓(Homeket)' 서비스는 CBS가 제공하는 알찬 생활정보와 최저가 구매 등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S, 스마트미디어 선교 앞장

교계 최초 선교미디어 체제 구축 CBS 각종 프로그램 모바일 시청 CBSTV, IPTV 서비스 개시

CBS가 케이블, 위성, 인터넷에 이어 IPTV와 스마트미디어(모바일)를 아우르는 N-Screen 선교미디어 체제를 교계 최초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에서 크고 시원한 화면과 글자로 CBS를 즐기세요!” CBS는 지난 8월25일 CBS 모바일웹(m.cbs.co.kr)을 노컷뉴스 모바일웹(m.nocutnews.co.kr)과 함께 오픈했다. CBS TV와 라디오의 생방송 및 다시보기(듣기) 서비스는 물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m.cbs.co.kr을 ‘홈 화면에 추가’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CBS는 교계 최초로 모바일 어플(‘CBS방송’ 어플)과 웹을 포괄하는 스마트미디어 선교체제를 갖추게 됐다.

IPTV를 통해서도 CBS TV를 볼 수 있게 됐다. CBS TV는 지난 8월 8일 KT 올레 TV에 실시간 방송(채널 557번)을 시작했다. 향후 IPTV의 장점인 VOD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CBS TV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CBS 오디오성경’ 어플이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속독’ 기능은 물론 SNS 연동과 다양한 참여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6개월간 전국의 CBS 아나운서들이 통독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정확하고 표준적인 고품격 오디오성경 어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감동 설교’ ‘HolyDay 영상설교’ 서비스 개시

CBS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설교를 시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HolyDay 영상설교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Full-HD급 영상송출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HD급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HolyDay 영상설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전용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을 보다 선명하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인도할 것이다.



‘노컷뉴스’로 인터넷 언론의 지평을 넓혔던 CBS가 지난 9월 1일 <노컷 V (www.nocutv.com)>를 출범시키고 ‘풀HD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뉴스’를

선보였다.

CBS는 <노컷V>를 통해 스마트시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가는 한편, 지난 60년 동안 감당해온 대한민국 대표 선교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CBS, 음악FM 인기행진

CBS 지역 네트워크 중 처음으로 개국 음악과 선교 프로그램으로 복음 전파

부산CBS(본부장 김창수)는 CBS의 지역 네트워크 중 처음으로 음악FM방송(102.1MHz)을 개국했다.

이로써 부산지역 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지역 선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CBS는 지난해 10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악FM방송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2월 21일 개국했으며, 클래식과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살롱, 12시에 만나다 12:00-14:00>, <깊은 밤 주님과 함께 02:00-04:00>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지역의 시민과 기독교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음 전파’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부산CBS 음악FM방송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높은 청취점유율로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끼쳐온 CBS음악FM의 컨텐츠를 그대로 부산 지역에 서비스함으로써 부산과 경남지역 청취자들의 고품격 음악방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찬송가와 CCM 등 기독교음악의 편성으로 지역의 선교와 성시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명회를 개최하고 10월 13일 남원동북교회에서 새예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강사로 초빙 남원중계소 허가축하선교대회를 갖는다.

CBS남원중계소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험방송을 하고 4월 4일 개소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한편 CBS는 충남홍성서산지역 인근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홍성중계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CBS 남원중계소 개소 박차

주파수 허가 따라 초청설명회 등 개최

홍성중계소도 적극 추진

전북CBS 서남부권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남원중계소가 90.7MHz로 주파수 허가가 남에 따라 개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26일 남원지역 교계인사를 초청 설

“주님의 사랑 온 몸으로 느꼈어요”

축복과 은혜, 감동의 시간...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생겨

직원 영성훈련 참가기

CBS는 지난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직원 500여명이 순차적으로 영성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직원 신앙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경영본부 총무부 박진영

사목실에서 주관한 직원 영성훈련!

세례 받은 이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직원 영성훈련 참가 통보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2박 3일간의 긴 시간을 찬양과 기도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매일 커다란 통나무를 굴러야 한데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참가한 영성훈련이었다.

그러나 기우였다. 직접 체험해본 영성훈련은 성경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천국’이었고 이제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2박 3일의 훈련기간 동안 ‘사랑의 동산’이란 작은 천국에서 참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이 먹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믿음에 정말 기쁨부어주시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국에서 내려와 다시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다.



많은 짐보파리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왔지만,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 때마다 로이스타들의 간증

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려한다.

동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섬김을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통나무를 굴리며 살아가려한다.

아울러 내 가족과 같이 눈물로써 기도해주고 섬겨주시던 도우미 여러분들, 신앙 재무장의 기회를 주신 회사와 사목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절망의 시절, 하나님이 희망의 빛 주셨다”

아버지 이어령 교수를 신앙으로 이끈

이민아 목사 〈새롭게 하소서〉 간증

무신론자이던 이어령 교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화제를 모았던 이민아 목사가 최근 신앙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을 출간해 세간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이혼과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과 장애, 이러한 시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내며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위로와 도전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아 목사가 지난 8월 22~23일 이틀에 걸쳐



CBS TV 대표 프로그램 ‘새롭게하소서’(진행 임동진 목사, 고은아 권사)에 출연해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했다.

이민아 목사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LA지역 검사를 역임했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다. 집안, 학벌, 외모, 능력... 누가 봐도 완벽하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늘 외로웠고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절망적인 사랑을 줄 것 같은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서둘러 결혼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그 결혼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녀의 고백이다. 그때의 자신을 “땅 끝에 있는 아이였다”고 표현한 이민아 목사. 그 땅 끝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친구, 계속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전도하던 자매, 그리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이민아 목사. 하지만 갑상선암,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실명위기, 성장한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둘째 아이의 장애 등 끊임없는 시련이 찾아

정체성 위기·결혼실패 끝없는 추락
고통의 시절 난 ‘땅 끝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아 구원
하지만 아들의 사망과 장애 또 시련
두려운 삶에서 신앙으로 평화 찾아

아왔다. 하나님께도 상처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과정은 강한 도전을 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자신처럼 사랑의 단절로 인해 땅끝에 서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CBS ‘새롭게하소서’에서 들려준 이민아 목사의 간증 <사랑, 그 놀라운 기적 1.2부>는 위대한 사랑의 힘! 치유와 회복, 기적의 감동 드라마였다.



“한국교회, CBS 전폭 지원 절실”

CBS 신임이사장 전병금 목사

-제25대 CBS 재단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언론을 통해 감당하는 기관이 CBS기독교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의 양심으로서 우리사회에 정의를 선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임기 2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실 생각인지요?

“현재 CBS는 방송환경 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미디어법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각계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전체가 CBS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요?

“새로 허가받은 종합편성채널에 혜택을 주기위해 종교방송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종교방송사들이 함께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9월에 열리는 각교단 총회에서도 성명을 내도록해 한국교회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CBS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교회가 방송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교회 갱신과 일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CBS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교회 120년 역사상 요점처럼 비판받는 일은 없었다. 40년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부심이 가끔 위축될 때가 있을 정도다. CBS는 이런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복음선교를 위해 더욱 매진하면서 교회갱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쳐온 사회적 역할에도 더욱 충실해야 한다. CBS때문에라도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CBS직원들에게 당부한다.”

미디어법 적극 대처 CBS, 예언자적 사명 감당

세상과 삶에 대한 열정, 그 ‘15분의 매력’

강연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소통, 정의, 평화, 사랑 등에 관한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시청자와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강연자는 전문가에서 평범한 이웃까지 세상과 삶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15분의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최근 강연 문화의 또 다른 핵심은 소통

과 나눔, 혹은 공유이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다음 TV팟, 페이스북, 유튜브, 올레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강연회와 방송이 함께 하는 온, 오프라인 결합 프로그램이다.

- 방송시간 : CBS TV - 월, 화, 수 오후 3시
-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cbs15min
- 트위터 : www.twitter.com/cbs15min
- 유튜브 공식채널 : www.youtube.com/cbs15min

찬양가수 등용문 생방송 공개오디션

전문심사위원단+청취자 참여점수로 평가



CBS 표준FM ‘최인혁의 가스펠 아워’ (22:05~24:00, 제작 강기영 PD)

에서는 ‘제22회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CCM경연대회 사상 최초로 생방송 공개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말에 있을 본선대회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이번 공개오디션은 8월 30일부터 5

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CBS TV공개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많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기호, 조수아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점수에 청취자의 실시간 참여점수를 반영하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스펠아워’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CBS 인터넷(cbs.co.kr)으로 동영상 생중계를 하여 전국의 크리스천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다.

강기영 PD는 “22년 전통의 창작복음성가제가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로 새단장을 하며 공개오디션 방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고 말하며,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찬양가수가 탄생하여 한국 CCM계의 부흥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2011년 CBS 특별모금방송 “CBS 방송선교에 적극 동참을..”

미디어선교 위한 장비교체·방송권역 확대
일본과 동남아에 기독교방송 설립도 추진
HD방송장비 전환 시급

스마트 미디어는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선물이자 또 하나의 기회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a)”는 말씀처럼 선교의 때가 참단 미디어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CBS는 57년의 역사 동안 방송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 미디어 발전에 발 맞춰 선교방송권역 확대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전세계 위성보내기,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마트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미디어선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CBS는 이 일에 더욱 힘을 모으기 위해 올해도 특별모금 방송을 준비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2011년 특별모금 방송은 세계선교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 선교의 불모지라 일컫는 일본땅에 선교 방송 설립을 목표로 CBS한일연합선교회를 조직해 오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동남아 지역에 기독교라디오방송설립과 현지어에 맞게 번역된 콘텐츠 공급을 위해 매진하려고 한다.

특히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으로의 의무전환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HD 장비전환은 시급한 사안이다.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시스템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방송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계시록6:11)”라고 말씀하신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 선교의 때에 방송선교사로서의 부름심에 응답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대한다.

CBS, 일본선교 본격화... 지진피해 성금 6천만원 전달



CBS의 일본선교가 본격화되고 있다. 8월30일 박용수상무(사진 오른쪽 세번째) 등 CBS 임직원과 CBS한일연합선교회 이사들은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해 지진 피해 성금(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례적으로 나가사키현 지사가 직접 나와 CBS가 펼쳐온 순교지순례 사업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CBS한일연합선교회는 지난 8월26일 CBS사옥 11층에 사무실을 오픈했다.

일본열도가 복음으로 덮이는 그 날까지 CBS의 일본선교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함께 하실 분은 CBS한일연합선교회로 연락하세요. (02-2651-4204)

선교후원 스토리
아름다운 손

금반지 내민 손 “이름 묻지 마세요”

한 여름의 나른함이 감도는 사무실, “아이고, 기도 많이 해야겠네, 기도 많이 해야겠어”라고 정적을 깨며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들어 오신다.

옆 건물을 CBS로 착각해 들어 갔는데 CBS로 다시 안내받고 보니 상대적으로 건물이 너무 좁다며 안타까워하셨다.

차 한잔 권한 시간도 없이 손을 덥석 잡으며 “저, 부끄럽지만 작은 반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받을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다 CBS로 한달음에 달려 왔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예쁜 보라색 주머니에서 꽤 묵직해 보이는 반지를 하나 꺼내셨다. 반



지 안쪽에는 ‘00교회 유치부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치부 전달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20년을 섬기고, 지난 달 은퇴하셨는데 그 기념으

로 교사들이 선물해 준 반지를 방송선교에 써달라며 들고 오신 것.

반지 하나 들고 오기 미안해서 교회 부교역자 사모인 딸의 십자가 목걸이도 빼앗아 오셨다며 주머니에서 또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셨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성함과 교회를 물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며 손사래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전도사님. 귀한 선물을 가져오신 아름다운 손을 우리 CBS 가족들은 잊을 수 없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방송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해주시는 우리 CBS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선교후원센터 4개월만에 후원자 1만4천명 돌파

■ 지난 3월8일 선교후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 만에 후원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다.

후원자들은 날로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현실 속에서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망라한 CBS 방송선교사역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도와 함께 소중한 선교헌금을 보내주신다. 앞으로 선교후원센터는 개인후원을 넘어 교회 전도회 등의 단체후원 및 기업후원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선교후원 스토리
이상춘 대표

하나님 만나 재기 성공... 나눔 실천

지난 해 1000억원의 매출성적을 올린 자동차 부품기업 SCL 대표, 이상춘 안수집사.

사재 105억원을 출연한 장학재단까지, 이상춘 집사를 설명할 때 ‘나눔과 섬김’이란 말 만큼 어울리는 단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은 반듯한 인상의 이상춘 집사도 빈곤의 아들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대신 친척이 운영하는 스프링공장에서 낮에는 청소, 밤은 물론 허드렛일까지 하며 기술을 배웠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는 혹독한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다.

부모의 그늘막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불평 대신 기도로 큰 꿈을 꿔고, 결국 21살에 300



만원으로 스프링공장을 운영하게 됐다. 2~3년간 날로 번창하던 공장은 1980년 오일쇼크로 위기에 직면하고 부모 위기에서 자살 직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시

작한다.

힘들었던 사업이 IMF때 경쟁업체를 인수하면서 성장케도에 진입, 결국 1000억의 성공신화를 이뤄낸 이상춘 집사. 최근에는 사재 105억원을 출연, 장학재단을 설립해 자신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 400명을 돕고 있으며, 방송선교에 힘써 달라며 CBS에 3000만원의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그는 500원으로 시작해 1000억 매출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부자로 만들어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았다.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 소원대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상춘 안수집사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는다.

CBS소년소녀합창단 국가행사 맹활약



지난 8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빈만찬행사에서 CBS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 노래하는 천사들, CBS소년소녀합창단이 위상을 드높이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011 서울G20국회의장회의 초청만찬을 비롯해, 반기문UN사무총장국빈만찬 행사 등 국가의 굵직한 행사에 초청받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특히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선보인 무대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올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CBS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가라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CBS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는 복음을, 지친 영혼에게는 안식을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기쁨을 방송전파로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선교후원금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 쓰이고있다.

● CBS선교후원 온라인 은행 계좌

◇국민은행 802-25-0009-268

◇우리은행 212-001999-13-045

◇농협 358-17-000404

※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편리. CMS는 매달 정하신 날짜에 정하신 금액을 CBS에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ARS 후원전화 060-808-0000

● CBS 선교후원 홈페이지 <http://love.cbs.co.kr>

● CBS 선교후원 안내전화 02-2650-7004